

# 이란, 한국상품 수입승인 추가보류

## KOTRA, 10월19일 3건 수입허가 보류 ... 20만달러 이상 수출 타격

이란은 10월19일 3건의 한국상품 수입에 대해 승인을 추가 보류했다고 코트라(KOTRA)가 10월20일 발표했다.

KOTRA는 “이란이 10월19일 3건의 한국상품 수입에 대해 승인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란의 한국산 수입금지 사태는 현지 주말 이후인 10월22일 움직임을 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테헤란 무역관이 이란 상무성 국장급과 통화한 결과 한국산 수입 승인을 재개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10월 17-18일 한국산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에서 19일에는 부분 수입금지로 일부 완화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10월19일 수입신청 4건 중에서도 3건은 보류되고 1건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KOTRA는 이란이 현지 한국대사관, 무역관, 주재상사, 한국상품 바이어 등으로부터 항의성 확인요청을 수없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한국산 원부자재 공급이 불가결한 자국 산업 사정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풀이했다.

KOTRA는 공식적인 한국산 수입승인 재개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란 당국이 원부자재를 제외한 건당 20만달러 이상의 불요불급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입허가를 발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확인 정보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 한국상품 수입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우려했다.

<화학저널 2005/10/21>